

#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이 여성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김은정<sup>1\*</sup>, 양희정<sup>2</sup>

<sup>1</sup>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sup>2</sup>여주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 The Effects of Spouse's Housework Intervention on Women's Depression

Eun-Jung Kim<sup>1\*</sup>, Hee-Jung Yang<sup>2</sup>

<sup>1</sup>Dental Hygienics,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sup>2</sup>Public Health Administration,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경기 수원, 이천, 여주, 광주 지역 소재 학령기 이후 자녀를 둔 어머니 119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목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필드 조사 방법을 통해 10일 간의 실증 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정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의 주중·주말과 자녀돌봄여부에 따라 우울증 유병률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 같은 차이는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에 따라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주중 돌봄과 주말 돌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는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에 따른 가사 부담 또한 경감될수록 우울증이 낮아지며, 예방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이 단순 주중 주말의 자녀돌봄 수준과 개입의 정도에 따라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가사와 자녀 돌봄 등 전체적인 가족관리까지 개입하여 분담할 때 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pousal intervention in housework on female depression. To achieve this, an empirical 10-day field survey of 119 mothers of children after school age was conducted in Suwon, Incheon, Yeosu and Gwangju, Gyeonggi-do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Spousal intervention in housewor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emale depression, but there were different prevalence rates of female depress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spousal childcare on weekdays and weekends. In other word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spousal intervention in housework on female depression according to weekday childcare and weekend childca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ducing housework burdens by spousal intervention in housework helps to lower and prevent female depression. Consequently,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spousal intervention in housework on female depress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simple weekday or weekend childcare and the degree of intervention, spousal intervention and sharing all family management duties, including housework and childcare, can maximize the effect.

**Keywords** : Female Partner, Intervention in Housework, Female Depression, prevalence rates, mental stress

### 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발전은 사회구조와 형태에 많은 변화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41-523-2874 email: mjk2873@naver.com

Received July 11, 2018

Revised (1st August 8, 2018, 2nd August 23,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남녀 간에 각기 맡고 있었던 역할과 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욕구와 함께, 여성의 교육 기회 상승, 직업의 다양화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종류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및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에 의해 사회참여율이 증가하였다[1-2], 지금까지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1980년에 5,410,000명, 경제활동 참여율은 42.8%이었지만[1], 2003년에는 9,418,000명, 경제활동 참여율은 49%였고 2015년에는 10,609,000명, 경제활동 참여율은 49.9%로[3]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점점 증가하였다.

현대 사회는 전통 사회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로, 여성들 또한 높은 교육 수준으로 사회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사회, 경제 활동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가사나 육아 등 가사노동에의 참여에 대해 공감하면서 가사 노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4].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은 기혼 가정의 남편이 가정의 자녀 돌봄과 가사 정리 등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관련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성 역할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남녀 사이의 실제 가사 노동 분담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6]. 이러한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5].

한국에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데[7-9], 이 결과는 통계청[3]의 남녀 노동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

즉 최근 우리나라는 취업 여성 비율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족의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

노동 시간과 일·가정 양립에 따른 갈등이나 부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이 무엇보다 중시된다[7]. 배우자의 가사 노동 분담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온 종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 평등, 육아 시설의 구비와 접근성, 조세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며 특히 배우자의 인식이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8].

물론 가사 분담은 시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여전히 혼인 등에 따른 남녀의 고용 여부, 남녀 간 가사 분업,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정

과 인식, 육아 시설의 접근성 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9].

이중 맞벌이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을 제외할 경우, 30대 초반에 남녀가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면서 배우자의 노동 개입에 따른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9].

이는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와도 연관된다. 즉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녀 돌봄에 대한 여성의 고유 업무로 간주해 온 전통적 유교 사회 문화와 연관된다[2]. 이 같은 문화는 결국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사 노동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일과 가족 역할에서 오는 역할 과중으로 여성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11-13]. 이는 여성의 상대적 역할 과중과 긴장을 수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가사 노동을 절대적 가치로 인식함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상실과 심리적 허탈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성의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13-16]. 이는 부부간 가사 활동에 대한 분담이 적을수록 부인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17]. 반대로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높았을 때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간의 가사 분담이 결혼 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전통적 유교관에 의한 배우자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기존 인식 및 한계와 그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을 설명하는 이론 및 가설에 근거한 배우자 가사 노동 개입이 여성의 우울증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 산업적, 학제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 2.1.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이 여성의 우

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여성가족부[2]의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상은 학령기 이후의 자녀를 둔 여성 중 신체적 돌봄과 관련된 참여 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비신체적 돌봄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가 증가하는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의 우울증 요인으로는 Kovacs 등[18]이 구성한 우울척도 중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들 중 일부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모형을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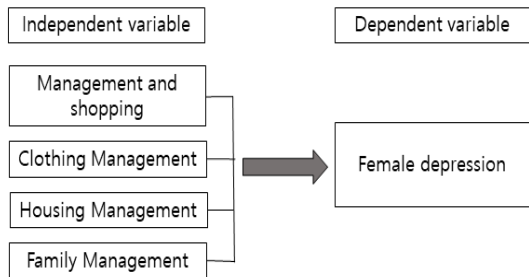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1.2 가설 설정

위의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을 위한 경영 및 장보기는 여성의 우울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을 위한 의생활 관리는 여성의 우울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을 위한 주생활관리는 여성의 우울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을 위한 가족관리는 여성의 우울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 2.2.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배우자의 가사 노동 개입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자녀가 학령기 전과 후에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가사 노동 참여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학령기 이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즉 자녀의 학령기에 따라서 배우자의 참여 수준과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자녀의 학령기를 기준으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경기도 수원, 이천, 여주, 광주 지역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둔 어머니로 각 지역별 2개 학교씩 총 8개교 각 25명씩 해당 학교별 교류 모임을 통해 1, 2학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00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 2.2.2 조사 기간 및 분석 자료

조사는 2018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수행하고 200명의 응답을 받아 그 중 미 제출자와 부실 기재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 119매를 분석하였다.

Table 1. Those Surveyed and Sample Selection

Classification	Content
Sample Target	Parents of First- and Second-Yea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Mothers)
Sample Area	Each 2 Schools in Suwon, Icheon, Yeosu and Gwangju
Sample Size	8 Schools in 4 Areas x Each 25 Persons = 200 Persons
Sample Selection Method	Wireless Convenience Selection Method
Effective Analysis	Missing Data, Final 119 Copies Excluding Improper Non-respondents

## 2.3 연구도구

### 2.3.1 가사 노동 개입

가사 노동 개입 관련 연구 도구의 구성은 Romanof[19]와 Rushton[20]에 의한 여성 가사 노동 실태 조사 척도와 이를 국내 적용한 Kim등[9]의 국민 생활시간 활용 조사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가사 노동 참여에 대한 질문 4가지 요인을 측정하도록 요인화 하였다. 이들 4개 요인은 의생활 관리 요인 5문항, 주생활 관리 요인 8문항, 가족 관리 요인 4문항, 경영 및 장보기 요인 3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가 .926으로 나타났다.

### 2.3.2 우울

우울척도는 Kovacs 등[18]이 개발한 우울 척도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중 이미숙[20]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CDI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DI를 사용하여 '우울정서', '대인장애', '무능력', '무력감', '자기비하'의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DI의 Cronbach's  $\alpha$ 가 .90로 나타났다.

### 2.3.3 통제변수

본 통제 변수는 Romano[19], Rushton[20]에 의한 여성의 가사노동 실태 조사와 국내 Kim 등[9]의 국민 생활 시간 활용, 국제 비교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조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변수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2.3.3.1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은 시간사용을 평가한 통계청[3]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시간일 지표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하루 평균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 2.3.3.2 근무 시간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무시간관련 변수는 주당근무시간으로, 주당근무시간은 양적인 근무조건을 의미한다.

#### 2.3.3.3 가족 요구 관련 변수

아버지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의 참여와 관련된 가족관련 변수로 아버지 연령, 학력, 소득수준과 자녀수, 자녀의 학령기, 맞벌이 여부 등 6가지를 포함하였다. 자녀수가 많고, 자녀의 학령기가 낮을수록,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아버지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요구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는 자녀가 몇 명인지 연속변수이며, 자녀 학령기는 초등학교 자녀기를 기준으로 중학교 자녀기와 고등학교 자녀기를 더미변수화하였다. 맞벌이 여부도 맞벌이인 경우를 '1'로 더미변수화하였다.

### 2.3.4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우울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사노동개입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사노동개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아버지 연령의 경우 40대 47.1%, 30대 43.7%, 50대 이상 9.2%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4년제 대졸 75.6%, 고졸 이하 18.5%, 대학원졸 이상 5.9%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300~499만원 47.1%, 300만원 미만 31%, 500~699만원 18.5%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 1명 59.7%, 2명 37%, 3명 이상 3.3%로 나타났다. 자녀 학령급의 경우 초등학교 42.9%, 미취학 33.6%, 고등학교 19.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의 경우 58.8%가 맞벌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당근로시간의 경우 41시간-50시간 45.3%, 40시간 이하 34.5%, 51시간 이상 20.2%로 나타났다. 주중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180분 초과가 33.6%, 121분~180분과 30분 이하가 각각 17.6%로 나타났다. 주말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180분 초과가 37.0%, 31분~60분 19.3%, 61분~120분 16.8%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 자녀돌봄시간의 경우 180분 초과가 41.2%, 31분~60분 19.3%순으로 나타났다. 주말 자녀돌봄시간의 경우 180분 초과가 47%, 31분~60분 20.2%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Frequency	%
Parental Age	30s	52 (43.7)
	40s	56 (47.1)
	Over 50s	11 (9.2)
Parental Level of Education	Under High School Education	22 (18.5)
	4-Year University Education	90 (75.6)
	Over graduate School Education	7 (5.9)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3 Million Won	37 (31)
	3-4.99 Million Won	56 (47.1)
	500-6.99 Million Won	22 (18.5)
	Over 7 Million Won	4 (3.4)
Number of Children	1 Person	71 (59.7)
	2 Persons	44 (37.0)
	Over 3 Persons	4 (3.3)
Children's School Level	Preschool	40 (33.6)
	Elementary School	51 (42.9)
	Middle School	5 (4.2)
	High School	23 (19.3)
Dual Income or Not	Dual Income	70 (58.8)
	Non-Dual Income	49 (41.2)
Working Hours Per Week	Under 40 Hours	41 (34.5)
	41-50 Hours	54 (45.3)
	Over 51 Hours	24 (20.2)
Weekly Housework Time	No	11 (9.3)
	Under 30 Minutes	21 (17.6)
	31-60 Minutes	11 (9.3)
	61-120 Minutes	15 (12.6)
	121-180 Minutes	21 (17.6)
	Over 180 Minutes	40 (33.6)
Weekend Housework Time	No	9 (7.6)
	Under 30 Minutes	13 (10.9)
	31-60 Minutes	23 (19.3)
	61-120 Minutes	20 (16.8)
	121-180 Minutes	10 (8.4)
	Over 180 Minutes	44 (37.0)
Weekly Child Care Time	No	17 (14.3)
	Under 30 Minutes	18 (15.1)
	31-60 Minutes	23 (19.3)
	61-120 Minutes	5 (4.2)
	121-180 Minutes	7 (5.9)
	Over 180 Minutes	49 (41.2)
Weekend Child Care Time	No	15 (12.6)
	Under 30 Minutes	14 (11.8)
	31-60 Minutes	24 (20.2)
	61-120 Minutes	5 (4.2)
	121-180 Minutes	5 (4.2)
	Over 180 Minutes	56 (47)
Total	119	(100.0)

###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이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학력별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 자녀학력별로는 미취학의 경우 우울이 심하고, 고등학교

교는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p<.001$ ). 주당근로시간별로는 51시간 이상의 경우 우울이 높고, 40시간 이하가 낮은 우울을 보였다( $p<.001$ ). 주중 가사노동시간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분이거나 180분 초과인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31분~120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p<.001$ ). 주말 가사노동시간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분이거나 120분 초과인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31분~120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p<.001$ ). 주중 자녀돌봄시간별로는 없는 경우와 30분 이하, 180분 초과인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61분~120분은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p<.001$ ). 주말 자녀돌봄시간별로는 30분 이하가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31분~120분은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p<.01$ ).

### 3.3 가사노동개입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분석

가사노동개입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 월평균 소득, 자녀 수, 자녀학력급, 주중 자녀돌봄시간, 주말 자녀돌봄시간, 경영 및 장보기, 의생활 관리, 가족 관리의 경우에 우울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 학력, 월평균소득, 자녀 수, 자녀 학력급의 경우에 우울증과 정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중 자녀돌봄시간, 주말 자녀돌봄시간, 경영 및 장보기, 의생활 관리, 가족 관리의 경우에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 3.4 가사노동개입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모형 1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urbin-Watson의 수치도 1.99으로 2값과 근접하여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모형 1에서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의 설명력은 60%로 설명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노동개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영 및 장보기와의 생활 관리의 경우  $\beta = -.675$ 로 나타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001$ ). 그리고 가사노동 개입에서 의생활 관리가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부적으로 나타나,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주생 활관리도  $\beta = -.363$ 로 나타내, 유의하지 않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5$ ). 가족관리는  $\beta = .694$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5$ ).

이상의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Mean	Standard Deviation	t/F(p)	Scheffe
Parental Age	30s	3.71	.86	1.801 (.170)	
	40s	3.37	.89		
	Over 50s	3.31	1.85		
Parental Level of Education	Under High School Education <sup>a</sup>	3.29	1.52	6.673** (.002)	c>b>a
	4-Year University Education <sup>b</sup>	3.47	.81		
	Over graduate School Education <sup>c</sup>	4.77	.39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3 Million Won	3.54	.94	.477 (.622)	
	3-4.99 Million Won	3.43	1.12		
	Over 5 Million Won	3.65	.66		
Number of Children	1 Person	3.62	.95	1.477 (.142)	
	Over 2 Persons	3.56	.84		
Children's School Level	Preschool <sup>a</sup>	3.74	.98	9.406*** (.000)	c>b>a
	Elementary School <sup>b</sup>	3.66	.79		
	High School <sup>c</sup>	2.75	1.20		
Dual Income or Not	Dual Income	3.38	.89	2.048 (.083)	
	Non-Dual Income	3.70	1.14		
Working Hours Per Week	Under 40 Hours <sup>a</sup>	2.99	1.30	11.780*** (.000)	c>b>a
	41-50 Hours <sup>b</sup>	3.65	.70		
	Over 51 Hours <sup>c</sup>	4.09	.51		
Weekly Housework Time	No <sup>a</sup>	4.82	.29	16.295*** (.000)	a>b,f>e>c,d
	Under 30 Minutes <sup>b</sup>	3.84	.54		
	31-60 Minutes <sup>c</sup>	2.95	.54		
	61-120 Minutes <sup>d</sup>	2.28	.59		
	121-180 Minutes <sup>e</sup>	3.28	.71		
Over 180 Minutes <sup>f</sup>	3.72	1.08			
Weekend Housework Time	No <sup>a</sup>	4.89	.11	24.992*** (.000)	a>b,e,f>c>d
	Under 30 Minutes <sup>b</sup>	3.94	.38		
	31-60 Minutes <sup>c</sup>	2.95	1.03		
	61-120 Minutes <sup>d</sup>	2.30	.94		
	121-180 Minutes <sup>e</sup>	3.86	.45		
Over 180 Minutes <sup>f</sup>	3.87	.55			
Weekly Child Care Time	No <sup>a</sup>	3.85	1.66	10.937*** (.000)	a,b,f>e>c>d
	Under 30 Minutes <sup>b</sup>	3.98	.45		
	31-60 Minutes <sup>c</sup>	2.73	.65		
	61-120 Minutes <sup>d</sup>	1.76	.22		
	121-180 Minutes <sup>e</sup>	3.37	.14		
Over 180 Minutes <sup>f</sup>	3.79	.70			
Weekend Child Care Time	No <sup>a</sup>	3.76	1.74	3.792** (.003)	b>a,f>e>c>d
	Under 30 Minutes <sup>b</sup>	3.97	.38		
	31-60 Minutes <sup>c</sup>	2.97	.91		
	61-120 Minutes <sup>d</sup>	2.60	.55		
	121-180 Minutes <sup>e</sup>	3.12	.54		
Over 180 Minutes <sup>f</sup>	3.67	.82			

\*\* p<.01, \*\*\* p<.001

**Table 4.**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Housework Intervention and Depress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Parental Age	1															
2. Parental Level of Education	.243 ***	1														
3. Average Monthly Income	.623 ***	.470 ***	1													
4. Number of Children	.443 ***	-.171	.115	1												
5. Children's School Level	.758 ***	.204 *	.592 ***	.466 ***	1											
6. Dual Income or Not	-.056	-.173	-.304 ***	.231 *	-.104	1										
7. Working Hours Per Week	-.160	-.125	-.322 ***	-.157	-.243 ***	.118	1									
8. Weekly Housework Time	.090	-.031	-.079	.156	.185 *	.018	.138	1								
9. Weekend Housework Time	-.019	.008	-.080	.003	.056	.030	.221 *	.891 ***	1							
10. Weekly Child Care Time	-.220 *	.058	-.198 *	-.199 *	-.172	-.061	.157	.765 ***	.817 ***	1						
11. Weekend Child Care Time	-.280 ***	-.004	-.247 ***	-.216 *	-.220 *	-.073	.114	.692 ***	.815 ***	.935 ***	1					
12. Management and Shopping	-.202 *	.080	-.202 *	.031	-.046	-.131	.144	.599 ***	.488 ***	.412 ***	.408 ***	1				
13. Clothing Management	-.234 *	.271 ***	-.134	-.397 ***	-.208 *	-.344 ***	.187 *	.384 ***	.389 ***	.468 ***	.417 ***	.641 ***	1			
14. Housing Management	.007	.249 ***	.039	-.268 ***	.046	-.451 ***	.058	.488 ***	.539 ***	.516 ***	.477 ***	.554 ***	.813 ***	1		
15. Family Management	-.208 *	.248 ***	-.130	-.235 *	-.070	-.371 ***	.106	.570 ***	.522 ***	.628 ***	.561 ***	.797 ***	.849 ***	.837 ***	1	

\*\* p<.01, \*\*\* p<.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usework Intervention on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beta$	p	B	$\beta$	p
(Constant)	0.412		0.473	0.851		0.158
1. Parental Age	-0.154	-0.098	0.391	-0.192	-0.123	0.321
2. Parental Level of Education	0.354	0.168*	0.037	0.425	0.202*	0.018
4. Number of Children	0.059	0.033	0.710	0.100	0.056	0.541
5. Children's School level	-0.334	-0.355	0.003	-0.443	-0.471***	0.000
6. Dual Income or Not	0.518	0.254***	0.001	0.503	0.247	0.006
7. Working Hours Per Week	0.626	0.453***	0.000	0.655	0.474***	0.000
8. Weekly Housework Time	-0.276	-0.487***	0.012	-0.062	-0.110	0.634
9. Weekend Housework Time	0.137	0.231	0.273	0.222	0.372	0.124
10. Weekly Child Care Time	0.127	0.247	0.290	-0.231	-0.449	0.121
11. Weekend Child Care Time	-0.033	-0.063	0.791	0.096	0.185	0.448
Management and Shopping				-0.642	-0.675***	0.001
Clothing Management				-0.063	-0.083	0.583
Housing Management				-0.275	-0.363	0.050
Family Management				0.526	0.694*	0.014
R <sup>2</sup>	.530(.482)			.6033(.546)		
Adj. R <sup>2</sup>						
F(p)	10.978***(.000)			10.446***(.000)		

\* p<.05, \*\*\* p<.001

Table 6. Hypothesis test result

Hypothesis	Hypothesis Contents	Test Result	
		adoption	rejection
H1	hypothesis 1. The effect on woman's depression by the male spouse's control on housekeeping accounting and shopping for the female spouse convenience	○	
H2	hypothesis 2. The effect on woman's depression by the male spouse's control on fashion lifestyle for the female spouse convenience		○
H3	hypothesis 3. The effect on woman's depression by the male spouse's control on housing lifestyle for the female spouse convenience		○
H4	hypothesis 4. The effect on woman's depression by the male spouse's control on family management for the female spouse convenience	○	

#### 4. 고찰 및 논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사 노동개입에 있어 경영 및 장보기는 유의한 정적인(+ ) 영향을 미치고, 의생활 관리와 주생활 관리도 유의하지 않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관리는 유의한 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생활 관리 및 주생활관리가 여성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유의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경영 및 장보기와 가족관리가 높아지면 여성 우울증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이 여성의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중·주말과 자녀돌봄에 따라 우울증 유형들이 다름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우울에 대한 차이에 있어 아버지학력별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학력별로는 미취학의 경우 우울이 심하고,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우울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근로시간별로는 51시간 이상의 경우 우울이 높고, 40시간 이하가 낮은 우울을 보였으며 주중 가사노동 시간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분이하나 180분 초과인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주말 가사노동시간별로는 가사노

동시간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분 이하나 120분 초과인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31분~120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게 나타나고 주중 자녀돌봄시간별로 없는 경우와 30분 이하, 180분 초과인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나고 61분~120분은 우울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말 자녀돌봄 시간별로는 30분 이하가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자녀 돌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의 개입에 따른 우울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 월평균 소득, 자녀수, 자녀 학령급, 주중 자녀돌봄시간, 주말 자녀돌봄시간, 경영 및 장보기, 의생활 관리, 가족 관리의 경우에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아버지 학력, 월평균 소득, 자녀 수, 자녀 학령급의 경우에 우울과 정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주중 자녀돌봄시간, 주말 자녀돌봄시간, 경영 및 장보기, 의생활 관리, 가족 관리의 경우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자녀 연령대에 있어 미취학인 경우 자녀가 어려 돌봄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 자녀돌봄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고 이로 인해 이어져 우울이 촉진됨을 의미한다. 반면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청소년으로서 양육에서 어느 정도 보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우울 또한 영향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자녀 돌봄이 많을수록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므로 초등학생 저학년일수록 배우자의 가사노동개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주중 주말 구분 있는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배우자의 인식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지지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가사 분담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됨에 따라, 30대 초중반에 남자가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면서 배우자의 노동개입제한에 따른 갈등과 여성의 우울증이 가장 높게 발생한다는 결과를 볼 때 배우자의 가사노동의 개입이 자녀의 연령과도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전문직 진출이 늘면서 여성들의 직장 내 역할 비중이 큰 현실에서 남성의 가사노동개입의 제한은 가정파괴로 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로서 따라서 여성 우울증 예방에 대한 일, 가정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으로 남편의 가



사 참여도를 높임에 따른 가사만족의 중요성과 가사노동 개입의 자녀학년에 따른 시기에 부합한 참여강도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술적 산업적 의의를 갖는다.

## 5.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 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은 의생활 관리 및 주생활관리는 기각되고 경영 및 장보기와 가족 관리 요인만 여성의 우울증 감소 및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 단순 의생활 관리와 주생활관리 지원은 기각된 점에서 선별적 사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의 과중한 역할 감소 및 남편과의 역할갈등 측면에서 볼 때 경영 및 장보기와 가족관리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 함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생활 관리, 주생활 관리 등의 제한적인 개입이나 참여만으로는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아정체감의 상실과 심리적 허탈감에 의한 우울증이 대폭 감소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여성의 우울증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성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배우자의 부부간의 균형적 역할 배분과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책임 인식 증대가 촉구된다. 이 같은 촉구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평등은 사회정의의 기본 요소로 이러한 점은 가족원의 일차적 생활근거지인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남녀가 성별에 관계없이 시간 사용에서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점에서 전체적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을 가지며 후속적 연구를 통해 표본을 전국적으로 균등화된 확장된 조사가 요구된다.

## Reference

- [1] K. R. Choi, Family relations, Kongdongche, 2007.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sessment Index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2015.
- [3] Statistical Korea. "Korean social trends", Statistical Korea, 2015.
- [4]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level of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occupational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Welfare*, Vol.2, No.1999, pp.140-158, 1999.
- [5] S. J. Jang, "Work-Family Balance Issues - Focus on Gender and Family/Individual Diversit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No.30, pp.219-238, 2007.  
DOI: <https://dx.doi.org/10.15855/swp.2007..30.219>
- [6] J. S. Park, "Difference in household labor time by economic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Focus on health and welfare issues*, Vol.156, pp.1-12, 2012.
- [7] S. Y. Heo,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Vol.24, No.3, pp.177-211, 2008.
- [8] J. H. Jung, "Is It Possible for Korean Women Labourer to Raise a Family? = Women's Work and Family", *Journal of gender equality studies*, Vol.2, No.-, pp.135-160, 2002.
- [9] O. S. Kim, K. Y. Lee, Y. S. Lee, H. K. Jo, S. M. Le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utilization of national life tim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Life Time Survey Results Academic Research Service Project Report for In-depth Analysis*, 2005.
- [10] J. Y. Jung, H. Y. Kim, "Development of work-family support service model for dual-income famil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pp.1-53, 2015.
- [11] K. W. Lee, H. S. Yoo, "Association of food insecurity and depression in Korean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 pp.62-7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62>
- [12] M. C. Lennon, S. Rosenfield, "Women and Mental Health: The Interaction of Job and Family Condi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3, No.4, pp.316-327, 1992.  
DOI: <https://dx.doi.org/10.2307/2137311>
- [13] R. R. Song, M. A. Lee, "Gender Role Attitude and Depressive Symptoms : Comparisons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9, No.2, pp.1-24, 2012.
- [14] I. K. Seo, S. H. Kim, "Effects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Their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Health and Welfare*, Vol.14, No.2012, pp.81-99, 2012.  
DOI: <https://dx.doi.org/10.23948/kshw.2012.12.14.81>
- [15] H. O. Jeon,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Depression and Antidepressive Coping Behavior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6, pp.2655-2663, 2012.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2.13.6.2655>
- [16] H. J. Kim, S. J. Ju, G. S. Kim, M. O. Kim, M. Yu, J. H. Choi, "Pathway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HPB) and Depression Cognitive Scale(DCS) on Smoking Cessation Thoughts and Intention to Quit Smoking of College Students who

- Smok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4, pp.1830-1840,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4.1830>
- [17] M. Cho, S. K. Yoon,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Fathers’ Family work -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44, pp.5-30, 2014.  
DOI: <https://dx.doi.org/10.16975/kjfs.2014..44.001>
- [18] M. Kovacs, T. L. Feinberg, M. A. Crouse-Novak, S. L. Paulauskas, R. Finkelstein,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Recover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41, No.3, pp.229-237, 1984.  
DOI: <https://dx.doi.org/10.1001/archpsyc.1984.01790140019002>
- [19] M. C. Romano, “The gender division of housework in the couples with children”, *Abstracts of 32th IATUR Conference*, 2010.
- [20] W. S. Rushton, “Men’s Unpaid Work and Divorce: Reassessing Specialization and Trade in British Families”, *Feminist Economics*, Vol.16, No.2, pp.1-26, 2010.  
DOI: <https://dx.doi.org/10.1080/13545700903448801>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2007년 7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 외래강사

<관심분야>

치면세마, 보건교육

양 희 정(Hee-Jung Yang)

[정회원]



- 2007년 7월 :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행정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초빙교수

<관심분야>

병원관리, 건강관리